

또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쌍둥이 유아의 관계적 특성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중심으로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Twin Children in Peer Interaction: Based on Their Verbal and Non-verbal Expression

저자 (Authors)	이승혜, 박선희 Lee, Seung-Hye, Park, Sun-Hee
출처 (Source)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9(4) , 2018.12, 253-283(31 page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9(4) , 2018.12, 253-283(3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11120
APA Style	이승혜, 박선희 (2018). 또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쌍둥이 유아의 관계적 특성. 어린이문학교육연구 , 19(4), 253-283
이용정보 (Accessed)	국민대학교 113.198.***.10 2022/01/03 13:0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또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쌍둥이 유아의 관계적 특성: 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을 중심으로*

이승혜**

박선희***

《요 약》

본 연구는 쌍둥이의 교육에 필요한 학문적, 실용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래 상호작용의 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쌍둥이의 관계적 특성 및 쌍둥이 출생순서에 따라 나타나는 관계적 특성에 대해 S시에 소재한 병설유치원에서 세 쌍의 쌍둥이 유아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하여 총 10개월에 걸쳐 연구되었다. 연구결과, 쌍둥이의 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특성은 배타적 결속 관계, 서로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쌍둥이의 경쟁관계 등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순서에 따라 첫째의 책임감, 양보, 권리의 특성, 둘째의 애교와 사랑스러움의 특성, 쌍둥이 간 형제 호칭에 의한 위계와 동료의식이 혼재된 관계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쌍둥이가 긍정적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쌍둥이라는 특수한 형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쌍둥이 양육과 교육에 교사와 부모의 협력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 쌍둥이(Twin Children)
- 쌍둥이 유아의 관계적 특성(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Twin Children)
- 또래 상호작용(Peer Interaction)

※ 논문접수 : 2018. 09. 30. / 수정본 접수 : 2018. 11. 20. / 게재승인 : 2018. 12. 06.

* 본 논문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교신저자 (shpark@knou.ac.kr)

I. 서론

여성의 사회생활 및 맞벌이의 증가와 결혼 적령기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변화하면서 만혼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만혼과 더불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아이 낳기를 미루는 사회적 인식까지 더해져 첫 자녀출산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모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난임 치료 등으로 다태아 출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2015).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2세로 지난해보다 0.2세 높아지고, 결혼 생활 후 2년 이내에 첫째 아이를 낳는 비율은 69.4%로 전년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모의 연령이 높아지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이란성 쌍둥이를 가질 확률은 35세~39세 사이에 급격히 증가해 35세 이하 여성의 세 배에 이르게 된다(Malmstorm & Poland, 2000). 또한 고령의 산모들이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많이 받고 있어 인공 수정과 시험관 아기 등을 통한 쌍둥이 출산이 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배란유발제는 여러 개의 배란 현상을 빚게 해 다태 임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쌍둥이 출산율 증가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나라에서도 공통적인 추세이며 주로 이란성 쌍둥이의 출산이 지난 30년간 1.5배에서 2배 가량 증가(Pison & Couvert, 2004)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쌍둥이의 부모들은 임신 단계에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부심과 기쁨에서부터 당혹스러움과 걱정,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을 갖게 되지만 쌍둥이 생후 1년 동안 쌍둥이를 돌보는 필요한 허드렛일을 하는데 온 시간을 보내서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시간이 부족하며 더욱 피로하다고 느낀다. 더구나 조산 등으로 올 수 있는 발육 지연에 관한 걱정과 함께 단태아 부모보다 자녀의 요구에 더 많이 직면하여 양육을 어렵다고 느끼게 되어, 쌍둥이 가정의 스트레스 수준은 단태아 가정보다 높아지게 된다(Malmstorm & Poland, 2000). 이처럼 쌍둥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쌍둥이를 단태아 유아처럼 양육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쌍둥이 간의 유대감은 부모와 아기 사이의 유대감보다 먼저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발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자궁을 공유했기 때문에 동료의식을 갖고 서로의 걱정거리나 고통을 알아보고 도움을 주는 것은 쌍둥이만의 독특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Malmstorm & Poland, 2000). Malmstorm, Poland(2000)는 영아기의 쌍둥이들은 단태아들에 비해 훨씬 빨리 쌍둥이들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시작하는데, 쌍둥이가 자기들끼리의 친밀한 유대감을 갖고 쉽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유아들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더디게 발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 중 하나인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중재수단으로 인간 행동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이다. 특히, 부모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언어적 요소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부모와 유아의 언어적 의사소통은 유아

의 언어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960년 이후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도혜숙, 1997). Bloom(1964)은 지능이 발달하는데 중요한 환경적 조건으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중 언어적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는데, 유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머니와의 대화가 유아의 성장, 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Miller, Maruyana(1976)는 부모와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유아는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과 언어적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 유아의 언어적 능력이 결정된다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유아기의 초기 언어 학습에 대상자인 가족 구성원의 중요성을 주장하였고 부모와 형제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또한 형제의 수가 언어표현력에 영향을 미치고 형제아의 표현력이 외동아의 표현력보다 우월한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유아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게끔 하는 동력이 된다. 유아들은 어른을 모방하며 배우지만 그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성공적인’ 유아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를 사는 어린이’(Corsaro, 2003)이다. ‘사회적 행위자로서 어린이’, ‘어린이의 관점으로’, ‘어린이가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이 새로운 연구의 영역은 ‘어린이 또래 문화’이다(Corsaro, 2003). 또래 문화는 어른의 세계와 구분되는 다른 사회적 세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장이며, 유아는 행동·사고·말하기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는 유아 나름의 문화 재생산의 장이다(Hirschfeld, 2002). 유아들의 언어란 유아의 사회적 지위에 적절하고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유아들에 의해 구조화된 그들만의 특징을 지닌 살아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유아들의 언어 사용을 고찰하는 것은 또래 문화의 역동적인 재생산과 변화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직접적이고 진솔한 연구 도구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유아기의 언어 연구에는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음성과 문자뿐만 아니라 몸짓, 손짓, 표정 등의 신체 동작을 포함하는 비언어적 표현도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에서의 쌍둥이 연구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9세기 이후부터 활발해지면서 1875년 Francis Galton의 연구를 시조로 많은 학자들이 쌍둥이 아동의 학교적응도 평가, 생물학적인 기초에 입각한 연구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해왔다(이은희, 2011). 쌍둥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며(Belsky, 1984), 쌍둥이 아동의 가정환경은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안녕,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Malmstorm & Poland, 2000). 이처럼 쌍둥이 아동의 부모는 동일한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을 동시에 양육해야 하므로 발달단계가 다른 두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와 질적으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쌍둥이 양육관련 연구로는 쌍둥이 영아의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관련 사회적 지지, 양육 스트레스와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고은영, 2010)와 쌍둥이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관계를 분

석한 연구(윤수인, 2007), 쌍둥이 아동과 일반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 비교 연구(윤영순, 2003)가 있으며, 쌍둥이 육아 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어려움에 대한 질적 연구(변경애, 김은주, 2013)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쌍둥이의 어머니는 외동아 어머니와 다소 다른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쌍둥이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관련 사회적 지지는 양육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고,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상호작용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정서 발달 맥락의 연구로는 3~5세 쌍둥이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의 관계 연구(윤수인, 2007)에서 쌍둥이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관계가 난성에 관계없이 모두 부분적으로만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기질의 차이는 일관성과 이관성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관성 쌍둥이만 여아에게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나타났다. 또한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는 일관성과 이관성 모두 온정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쌍둥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살펴본 발달적 관점의 연구나 가정에서의 쌍둥이 양육과 관련한 연구, 쌍둥이의 정서맥락과 관련된 연구 등만 있었고 언어와 관련된 연구에도 부모의 언어 통제에 의한 유아의 언어 습득 및 발달, 그리고 형제관계에서의 유아 언어발달 연구만 있을 뿐이다. 또한, 쌍둥이의 언어에 관련된 선행연구로 언어발달 지체 쌍둥이를 다룬 연구 정도이고 일반적인 유아기 쌍둥이가 교육현장에서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표현을 통한 연구가 부족하여 쌍둥이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교육적인 참조를 위해 쌍둥이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쌍둥이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관찰기록하고 학부모, 동료교사 및 쌍둥이 유아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그들의 관계적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관계가 형성되는 유아기에 유아교육 기관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쌍둥이 유아들의 표현 양상을 분석하여 쌍둥이에게 필요한 사회관계의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주고 교사들에게 쌍둥이 유아들의 전반적인 관계적 특성의 이해와 그들의 교육에 필요한 학문적,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쌍둥이의 출생순서에 따른 표현 양상을 분석하고 각자의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쌍둥이를 양육하는 가정환경의 중요성과 쌍둥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모의 양육에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위해 상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또래 상호작용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서 나타난 쌍둥이 유아의 관계적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또래 상호작용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서 나타난 출생순서에 따른 쌍둥이 유아의 관계적 특성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 교사로서 연구자는 유아교육과 학부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경력 8년을 보유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로, 현재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며 2016년에 만 4세 학급의 담임을 맡아 22명의 유아를 지도하였으며 세 쌍의 쌍둥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자는 학기 초 교실에서 유아들이 또래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반 유아들과 달리 쌍둥이 유아는 서로에게 집중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관계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는 그들의 특성에 따라 사회성 증진과 언어적 상호작용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찾아 현장에 적용하려 하였으나 쌍둥이의 언어에 대한 연구 및 참고자료가 부족함을 느끼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S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설유치원 만 4세 학급에 세 쌍의 쌍둥이와 학부모, 그리고 쌍둥이를 지도하였던 동료교사들이다. 쌍둥이는 연구자가 2016학년도 당시 직접 지도했던 만 4세반의 유아들이며 이란성 쌍둥이로 구성되었고, 학부모의 경우 쌍둥이 형제 외에 다른 형제가 없고 부모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맞벌이 가정이다. 동료교사의 경우 방과후과정반에서 쌍둥이를 같이 지도하는 교사 3명과 2015년 쌍둥이들의 만 3세를 담임하였던 교사이다. 이들의 배경은 표 1, 표 2, 표 3에 제시되었으며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표 1〉 쌍둥이 연구 참여자의 배경

형태	출생 순서	나이	비고
이란성(6분 차이)	강재민(오빠)	2011년 2월생 (만 4세)	2016년 만 4세 입학 1년 재원
	강민지(여동생)		
이란성(15분 차이)	최세훈(형)	2011년 2월생 (만 4세)	2015년 만 3세 입학 2년 재원
	최세환(남동생)		
이란성(11분 차이)	김서혜(언니)	2011년 9월생 (만 4세)	2015년 만 3세 입학 2년 재원
	김지혜(여동생)		

〈표 2〉 학부모 연구 참여자의 배경

쌍둥이	이름	연령	직업
강재민, 강민지	부: 강인채	만 37세	요리사
	모: 안선희	만 42세	회사원

최세훈, 최세환	부: 최태식	만 40세	자영업
	모: 주영희	만 40세	자영업
김서혜, 김지혜	부: 김은식	만 42세	회사원
	모: 김혜원	만 36세	회사원

〈표 3〉 교사 연구 참여자의 배경

교사명	학력	경력(연령)	근무형태(유아를 지도한 해)
김연희(A교사)	대졸	10년(30대)	교육과정반(2015년)
김소현(B교사)	대졸	7년(30대)	방과후과정반(2016년)
석나은(C교사)	대졸	4년(40대)	방과후과정반(2015년~2016년)
주한나(D교사)	대졸	4년(30대)	방과후과정반(2015년~2016년)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6년 3월 7일부터 2016년 12월 23일까지 총 10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1) 참여 관찰

연구자는 유치원 교육과정 시간인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세 쌍둥이와 또래들과 놀이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 관찰기록하고 녹음을 통해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였으며 방과후과정반 시간에 오후 생활을 관찰하여 대·소그룹활동 및 개별 활동을 통한 쌍둥이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등·하원 시간이나 유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자유선택활동 및 바깥놀이에서는 하루에 한 쌍의 쌍둥이 별로 요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쌍둥이가 표현하는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속기로 기록하였다. 그 외에 유아의 발표를 통해 수용언어와 표현 언어에 대한 관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약 기 및 녹음을 통해 후에 전사하였다. 또한, 온전한 관찰자가 될 수 있는 방과후과정 시간에는 자유선택활동시간을 주로 이용하여 초점 대상인 쌍둥이를 중심으로 또래 친구와의 놀이가 방해 받지 않도록 하며 그들의 행동과 대화를 기록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과정반 시간에는 다른 관찰자(오후 방과후과정반을 지도하는 동료교사 2명)를 선정하여 사전에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미리 촬영한 동영상상을 통해 쌍둥이 유아의 표현을 분석하며 관찰의 포인트 및 방향을 알려주고 동영상 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관찰 후 일과기록과 체크리스트의 사용방법을 사전에 훈련시켰다. 다른 관찰자는 3번 이상의 관찰 훈련 후 교육과정반 수

업에 참관하며 쌍둥이와 또래들의 언어 상호작용을 관찰 후 체크리스트, 일화기록 등으로 기록하여 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관찰 후 연구자와 관찰한 내용에 대해 회의를 통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연구자와 관찰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 그 관찰에 대해 잠시 보류하고 다른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 보충하여 관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2) 면담

연구자는 참여 구성원들과 구조적 또는 비구조적 면담을 실시하였다. 모든 면담은 녹음기를 사용하여 자료로 남겼으며 참여자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다른 방법, 다른 시간동안 이루어졌다. 유아와의 면담은 대부분 놀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그 의미에 대해 바로 질문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상대 쌍둥이에게 어떤 귀속말을 전달하였는지 등의 쌍둥이 둘만의 언어 전달 등에 대한 질문, 다른 친구를 배제하고 서로의 놀이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 새로운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비구조적 면담을 하였고 질문 때문에 놀이가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동료교사와 학부모는 구조화된 면담과 비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교사들과의 구조화된 면담은 수업이 끝난 후 빈 교실에서 연구 초반(4월)과 후반(9~10월)에 1회 30분 내외로 실시하였으며 후반은 질문지를 만들어 언어 표현 양상이나 맥락 등을 질문하였다. 비구조화된 면담은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관찰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것으로 그 의미를 찾는 것이었다. 학부모와의 면담은 1, 2학기 두 번의 학부모 상담을 통해 매회, 30분 내외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관찰 과정에서 생긴 질문 등은 수시로 전화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3)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성을 위한 작업

10개월 동안 이루어진 연구에서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연속선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수집하였으며 다양한 자료를 통해 참여 유아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직접 관찰한 자료뿐만 아니라 참여자들과의 면담 자료 및 유아들의 언어와 관련된 작품, 가정에서의 언어 환경과 언어를 위한 교육방법 등을 포함하여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자일지를 작성하여 연구 과정에서 변화되는 연구자의 관점이나 생각, 느낌을 남겼으며, 이것은 수행했던 연구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데 도움을 주었다.

연구 참여자를 위하여 연구의 목적, 기간, 과정, 연구 참여자의 역할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한 경우에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언제든지 원하면 연구를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자의 신분과 개인 정보에 대한 노출이 없도록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였으며 모든 참여자의 성명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2. 자료 분석 및 해석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전자문서로 완성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관찰과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녹음 파일을 참고해가며 보다 완결된 것으로 만들었고 전사된 관찰기록과 면담기록, 연구자기록은 수집된 순서에 따라 종류별, 날짜별로 정리하여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자료를 의미화하는 단계에서 연구자는 축적된 자료를 매일 반복적으로 읽으며 검토한 후 참여자들에게 의미 있는 주제를 찾았으며 연구 초기에 개방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의 자료는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의미 있는 주제를 탐색하는 자료로 주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부호화된 자료를 범주화하는 것으로 개방코딩을 통해 해석된 자료들은 속성과 차원에 근거하여 몇 가지 범주로 나누었으며 이 과정에서 유아교육 전문가의 검토과정을 거치고 사례들 간의 관계를 비슷한 차원으로 조직하고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 나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사례를 묶었다. 또한 도출된 결과로부터 각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사례들을 선택하고 조직적으로 배열하였으며 동료 보고 및 구성원 검토를 실시하여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을 보완하였다.

또한 쌍둥이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특성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주제를 범주에 따라 구성과 재구성을 반복하고 유연한 범주를 발견하고 같은 종류의 사례를 재조직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이를 통해 일반 유아에게도 발견되지만 쌍둥이 유아에게 좀 더 특징 있게 발견되는 범주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쌍둥이 표현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특성을 해석하고자 하였는데 연구자는 쌍둥이가 보여주는 표현 언어에서 언어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비언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모두 수용하여 해석하였다. 이는 유아기에 언어 사용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짓, 손짓, 표정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행동과 의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유아의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하였다.

질적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오랜 기간 관찰을 수행하였으며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연속선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관찰 자료를 다각적으로 얻는 삼각검증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동료 연구자들의 동료보고는 간주관성 확보에 도움이 되었고, 연구자일지를 작성하여 연구 과정에서 변화되는 연구자의 관점이나 생각, 느낌을 남겼으며, 이것은 수행했던 연구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게 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쌍둥이 유아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특성

1) 둘만의 배타적 결속 관계

또래집단은 서로 간의 생각 교환이 자유로운 수평적인 관계로 연령, 신분, 흥미, 관심거리가 서로 비슷한 유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구광현, 이희경, 2002). 그러나 쌍둥이는 나이, 성, 학년 등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지위에 있는 동년배이면서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 행동이 유사하며 사회적으로 동일시되는 대상인 또래(Shaffer, 2000)가 태어나면서 부터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강한 결속력을 보이는 이른바 단짝이라고 불리는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1) 둘만의 비밀 - 우리만의 귓속말

쌍둥이 유아들은 형제자매이자 또래 관계로 이미 단짝 친구이기 때문에 사회관계를 처음 시작하는 유치원 초기나 새로운 학기의 시작에서 다른 또래 유아들과 어울리기 위한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않으며 또래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둘만의 의미를 공유하며 놀이하고 귓속말을 통해 비밀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례 [1]에서 학기 초 여아들이 활발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며 또래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으나 쌍둥이인 서혜와 지혜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둘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귓속말과 몸짓으로 둘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둘 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만족하기 때문에 귓속말이라는 언어 표현을 통해 다른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1] 미술영역에서 서혜와 지혜 그리고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세연: (자신의 그림을 가리키며) 이거 봐. 왕관 그렸어. 예쁘지?

남현: 예쁘다. 채원아 세연이 그림 잘 그리지?

채원: 내가 더 잘 그릴 수 있어. 나는 머리를 길게 할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혜는 서혜의 귀에 무엇인가 속삭거리고 서혜는 고개를 끄덕인다.

세연: (갑자기) 지혜 그림 잘 그린다. 이거 공주님이지? 이름이 뭐야?

지혜: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주주

세연: (격하게 반응하며) 시크릿 주주!! 애들아 지혜가 시크릿 주주 그렸어.

남현, 채원: (일어나서 다가오며) 나도 보여줘.

순간 지혜는 서혜의 귀에 무엇인가 속삭이며 인상을 쓰고 서혜 또한 같이 인상을 쓴다.

잠시 후 둘은 그림을 정리하고 손을 잡고 다른 영역으로 이동한다.

(※ 차후 지혜와 서혜에게 어떠한 꾀속말을 하였는지 물어 보았을 때 친구들이 둘 사이를 방해하는 것 같아 자리를 옮기자고 하였다는 답변을 함)

(자유선택활동 미술영역, 2016.03.25.)

새 학기가 되면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의 낯선 아이들도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부딪혀 가면서 다른 아이들처럼 말도 한 번 더 해보고 나랑 맞는 친구들을 찾아보려고 막 놀아볼 텐데 쌍둥이들은 너무 둘이, 둘만 도서관도 바깥놀이도 둘이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속닥속닥 하니깐 다른 친구들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C교사 개별면담, 2016.04.21.)

(2) 둘만의 놀이 - 나하고만 놀아야 해

쌍둥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형성된 단짝친구이기 때문에 처음 또래관계가 시작되는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다른 친구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례 [2]에서는 세환이가 다른 친구들과 또래관계를 형성해 가는 모습을 보이다 세훈이가 돌아옴과 동시에 새 친구와 관계를 끝내고 둘만의 놀이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례 [3]에는 다른 아이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교사가 인위적인 개입을 할 때에는 쌍둥이들은 다른 친구들과 놀이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교사의 개입이 끝나면 다시 둘만의 관계로 돌아가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나타난다.

[2] 세환이가 여러 명의 남자친구들과 쌓기 영역에서 블록으로 놀이를 하고 있다. 이때 교사와 함께 작은 책 활동을 끝낸 세훈은 쌓기 영역으로 와서 무리에 끼지 못하며 세환이만 쳐다보지만 놀이에 집중한 세환은 세훈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세훈: (잠시 기다렸다 세환의 귀에 무엇인가 꾀속말을 한다.)

세환: (친구들에게) 나 이거 그만 할래.

세환은 세훈과 둘이서 맥포머스 블록을 가지고 둘만의 새로운 놀이를 시작한다.

(자유선택활동 쌓기놀이영역, 2016.04.05.)

[3] 역할영역에서 5명의 유아들이 엄마·아빠 놀이를 하고 있다.

교사: 무슨 놀이하니?

윤하: 엄마·아빠 놀이해요. 내가 큰엄마예요.

지원: 나는 엄마예요. 민성이가 아빠

교사: 선생님이라 지혜랑 서혜도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해도 될까? (중략)

교사가 빠진 후 잠시 뒤 윤하, 예람, 지원, 서혜, 지혜가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윤하, 예람, 지원이가 한 팀으로 지혜와 서혜는 다른 한 팀으로 다른 놀이를 하고 있다.

교사: 선생님이 가기 전에는 다른 친구들과 놀았는데 지금은 둘이서 하는구나?

서혜: (잠시 우물쭈물하다) 나는 지혜랑만 노는 것이 좋아요

지혜: 나도 언니랑 하는 것이 더 재미있어요.

(자유선택활동 역할놀이영역, 2016.05.12.)

재민이도 민지하고만 놀고 민지도 재민이하고만 놀고. 어떻게 하면 나를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둘이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다른 친구랑 전혀 붙여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랑 서로 말하며 놀이할 수 있게 해주면 어느새 다른 한 명이 찾아와 또 둘만 있고 친구랑 같이 놀자 이렇게 붙여주면 싫다고 하고 다른 한 쪽하고만 노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C교사 개별면담, 2016.09.28.)

단짝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친구가 자신하고만 놀기를 바라는 애정적 욕구가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박혜란, 2008). 이는 생활 전부를 공유하는 쌍둥이가 서로에게 더할 나위 없는 단짝 친구관계임을 나타내는데 그 관계가 지속되어 쌍둥이 외에 다른 또래들을 멀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3) 둘만의 결속 - 이거 지켜줘

친밀한 또래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또래집단 구성원과 결속을 다지는 다른 방식이다(김희태, 2008; 최현주, 최연철, 2013). 이는 다른 구성원에 대해 배타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둘만의 결속을 다지는 방식으로 사례 [4]에서 세환의 경우에도 자신의 자동차를 지켜달라고 했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세훈은 손에 꼭 쥐기 까지 하는 행동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유아들 역시 자신의 놀이에 몰두하고 있어 쌍둥이의 놀이에 관심을 두는 이는 아무도 없어 보였다. 쌍둥이들은 자신들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유아들을 배제시키는 이러한 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다.

[4] 쌓기영역에서 세환과 세훈이 한 팀으로 놀이를 하고 주변에는 다른 친구들이 있다.

세환: (갑자기 일어나며) 나 쉬 마려워. (다른 친구들을 한 번 살펴보다니 자신이 놀던 자동차를 가리키며) 형아 이거 지켜줘. 다른 친구가 가지고 가면 안 돼.

세훈: (고개를 끄덕인다.)

세환: 형아 꼭 지켜줘야 해

세훈: (자동차를 손에 꼭 잡으며) 내가 가지고 있을게.

(자유선택활동 쌓기놀이영역, 2016.05.26.)

유아들은 또래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소속감이나 애정을 느끼고 칭찬이나 인정, 신뢰감 같은 심리적인 요인을 경험할 수 있다(서영숙, 이재연, 성영혜, 김광웅, 1992). 그러나 쌍둥이들은 다른 또래집단에 스스로없이 소속

되거나 어울리기 보다는 자신들만의 것을 지키기 위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둘만의 결속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쌍둥이 이외의 또래 유아들을 멀리하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2) 서로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일반적으로 정서란 기쁨, 슬픔, 노여움 따위의 관념에 따라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을 일컫는 것이다(김지현, 2003). 이러한 정서적 의미의 표현은 공유하는 시간, 공간 등의 생활 전반을 함께 하는 쌍둥이 유아의 경우 서로에 대해 공허함, 배신감, 상실감, 부러움 등의 정서적 감정을 더 크게 느끼게 되며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표현되는 것이 나타난다.

(1) 공허함 - 내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쌍둥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Zahn-Waxler, Schiro, Robinson, Emde, Schmitz(2001)의 연구에서 1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쌍둥이 유아는 환경 공유량이 59-80%로 나타났다. 쌍둥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상대가 없는 경우 낯설음을 더 크게 느끼며 그 상황을 적응하기 어려워한다. 사례 [5]에서는 감기가 걸려 등원을 못한 세환의 빈자리로 인해 세환이 공허함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난다. 사례 [6]은 지혜가 결석하여 서혜 혼자 등원한 날이며 다른 친구들은 삼삼오오 모여 놀고 있는 반면 서혜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포기한 채 혼자만의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친구와의 놀이를 시도하지 않는 말과 행동에서 한 쪽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보여주고 있다.

[5] 등원 후 아침모임 시간에 세환이의 눈이 빨개져 있다.

교사: 세환아 무슨 속상한 일 있니?

세환: (교사에게 안겨 울먹이며) 형아가……. 형아……. 으앙~ ~(종락)

세환: 형아가……. 안 왔어요. 아파요.

교사: 형이랑 같이 안와서 혼자여서 세환이가 속상한 거니? 그래서 울은 거야?

세환: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시울이 붉어진다.)

(등원시간, 2016.09.02.)

[6]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서혜가 혼자 퍼즐을 가지고 놀이하고 있다.

교사: 서혜는 왜 혼자 할까? 친구랑 같이 하면 더 재미있는데.

서혜: 오늘은 지혜가 없어요.

교사: 지혜가 없어도 다른 친구들이 있잖아.

서혜: (교실을 한 바퀴 둘러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안 친해요.

교사: 우리반은 다 같이 친구인데. 왜? 같이 놀면 더 재미있는데. 혼자 놀면 심심하지 않아?

서혜: 자기네 맘대로 하고 내 애기도 안 들어 줘요. 내일 지혜랑 놀면 되요.

(자유선택활동 언어영역, 2016.10.13.)

한 명 안 온 적이 있는데, 온 애는 되게 공허해하고. 근데 그런 경험이 개네들은 별로 없잖아요. 항상 같이 있고 혼자 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짝한 마음이 들죠. 혼자 오면 기가 확 죽어 보인대거나 혼자 놀고 다른 친구들의 주변을 맴돌기만 하죠.

(B교사 개별면담, 2016.10.14.)

(2) 배신감 - 다른 친구와 놀면 난 누구랑 놀지?

쌍둥이는 상대가 다른 친구에게 호감을 보이거나 놀이를 하면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사례 [7]은 재민이 다른 친구들과 놀이를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놀이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었으며 이 때 민지는 재민에게 다른 놀이를 제안하였지만 거절당하고 야속한 감정을 드러낸다. 이와 반대로 사례 [8]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놀이 상황 중 갈등이 일어나 놀이에서 빠지게 된 재민은 같이 놀 사람을 찾아 쌍둥이 여동생인 민지를 찾아간다. 그러나 민지에게 거절당하자 ‘다음에 너랑 안 놀아 준다’라는 협박과 함께 서운한 감정의 말을 남기고 돌아선다.

[7] 쌓기 놀이 영역에서 재민, 해민, 예서가 레고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다.

민지: (재민에게) 오빠 나랑 게임하기로 했잖아.

재민: (잠시 망설이며) 나는 지금 이거 할 건데.

해민, 예서: 재민아 가지마. 너 없으면 재미없어. 이거 계속 하자.

재민: (잠시 고민하다 결심한 듯) 나는 지금 이거 할래. 게임 이따 하자.

민지는 잠시 재민을 바라보고서 울먹일 듯한 얼굴로 쌓기놀이영역을 나가 버린다.

(자유선택활동 쌓기놀이영역, 2016.10.11.)

[8] 바깥놀이에서 민지가 다른 친구들과 경찰과 도둑놀이 중이다.

민지: 재윤이가 도둑이야. 잡아라!

재민: (모래놀이도구를 가지고 나타나며) 민지야~ 강민지~ 나랑 같이 모래놀이하자.

민지는 뛰어다니느라 소리를 듣지 못하자 재민은 뛰어가 민지를 붙잡는다.

재민: 야! 못 들었어? 나랑 모래놀이 하자고.

민지: (재민이 붙잡은 옷자락을 뿌리치며) 나 지금 경찰놀이 할 거야.

재민: (몹시 서운한 얼굴로) 너 이러면 다음에 너랑 안 놀아준다.

민지: (잠시 멈칫한 후에 타협하듯이) 그럼 오빠도 이 놀이하자.

재민은 잠시 민지를 째려보다 확 돌아서 모래놀이 장소로 이동한다.

(바깥놀이, 2016.10.25.)

친구관계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호감에 의한 감정적인 교류관계이다(윤진, 1984).

이러한 감정적 교류와 상호의존적인 관계 맺음은 쌍둥이 유아의 소통을 원활히 해 주지만, 쌍둥이 유아가 다른 유아에게 호감을 보이거나 자신의 원하는 것을 충족해 주지 못할 경우 다른 친구관계 보다 강한 배신감의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 상실감 - 너 아니면 내 곁엔 아무도 없어

쌍둥이 유아의 경우도 서로 다른 성격이 형성되며 둘 중 외향적이고 사회성이 좋은 한 명에게 다른 친구가 생기면 좀 더 내성적이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나머지 한 명의 단짝 친구를 잃어버린 듯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사례 [9]에서 지혜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놀이를 즐기고 다른 친구들과의 놀이가 많아졌으며 서혜는 상실감을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산타놀이에 합류를 거부하고 비언어적이며 소극적인 행동을 표현했다. 사례 [10]의 경우 지혜는 율동을 서혜는 중창을 하겠다고 결정하였으나 서혜가 지혜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혜는 같은 팀이 되는 것을 반대하였는데 지혜는 단순히 연습의 부족으로 팀에서 싫어할 것이라는 마음이었지만 자신을 거부한다는 생각에 섭섭한 마음이 생긴 서혜는 울면서 ‘너 나빠’라는 말을 통해 상실감을 표현한다.

[9] 역할놀이 근처에서 서혜는 계속 지켜보며 서성이고 있다.

교사: 산타놀이 하고 싶니?

서혜: (섭섭한 표정으로) 지혜가 나랑은 안 놀고 다른 애들하고 놀기만 해요.

교사: 그럼 서혜도 지혜랑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하면 좋은 것 같은데. 어때?

서혜: (고개를 저으며) 지혜랑만 놀고 싶어요.

(자유선택활동 역할놀이영역, 2016.12.06.)

[10] 교사와 몇몇 아이들이 율동 연습을 하고 있고 서혜가 다가와서 물끄러미 본다.

교사: (동작을 멈추고 다가가서) 서혜야, 하고 싶은 말 있어?

서혜: (한참 후에) 나도 이거 하고 싶어요.

교사: 아~ 서혜는 노래팀 말고 지혜랑 같이 율동 팀이 하고 싶니?

서혜: (고개를 끄덕인다.) 지혜랑 하고 싶어요. (중략)

교사: 지혜야, 서혜가 지혜랑 같이 율동을 하고 싶대. 어때니?

지혜: (잠시 생각 후에) 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요.

교사: (서혜에게) 율동 팀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봐야겠지?

지혜: (갑자기 끼어들며) 같이 하면 안돼요! (교사에게) 친구들이 싫어해요. 우리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언니는 연습을 안했으니까 잘 못해요. (서혜를 보며) 그러니까 언니는 노래 팀해.

서혜: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며) 너 나빠!!

(작은음악회연습, 2016.12.01.)

2학기가 지날수록 지혜는 모든 애들이랑 다 잘 어울렸어요. 주로 여자 아이들이지만. 근데 서혜는 자기가 놀고 싶은 것을 지혜에게 말하고 지혜가 ‘그거 안 놀 거야’ 그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서혜가) 집에서 ‘나는 혼자야, 친구들이랑 지혜가 안 놀아줘’ 집에서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거 때문에 서혜가 상처받을까봐 (어머님이) 걱정 많이 한다고 상담전화 주신 적도 있어요.

(A교사 개별면담, 2016.4.21.)

(4) 부러움 - 나는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쌍둥이는 생활의 전반을 함께 하는 형제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향으로 인해 조금 더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유아는 상대에 대해 부러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11]은 피구 게임을 하는 장면으로 팀원 선정에서 운동 능력이 앞서는 세훈은 첫 번째 선발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교적 운동 능력이 부족한 세환의 경우 선택이 되지 않고, 이때 세환은 세훈에 대한 부러움과 뽑히지 못한 부끄러움으로 속상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세환은 다른 팀장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러움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사례 [12]에서는 사회성이 뛰어난 재민에게 여자 친구들이 함께 놀이하기를 요청한다. 하지만 여자 친구들이 놀고 싶은 것은 재민일 뿐 민지가 아니기 때문에 재민은 당황하고 민지는 부러움과 마음의 상처를 ‘나도 이 게임 재미없어’라는 회피의 언어로 표현한다. 즉, 또래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인기아와 비인기아가 쌍둥이에게서도 발생하게 되는데 세환의 경우는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지민의 경우는 회피하는 표현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11] 방과후과정반(혼합연령)에서 팀장인 유아 둘이 자신의 팀원을 뽑고 있다.

지율: 가위바위보! 아싸! 이겼다. 난 최세훈.

세환은 계속 손을 흔들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지만 지율과 성재는 무시한다.

세환: (손을 높이 들며) 형아! 나 나 뽑아줘!!

지율: 넌 피구 못하잖아.

세환: (소리를 지르며) 나 잘해! 피구 잘한다고!!

지율이 무시하는 듯 시선을 피한다.

세환: (규민을 향해 손을 흔들며) 규민이 형아! 나 뽑아줘 나

(신체활동시간, 2016.11.24.)

[12] 재민과 민지가 수 조작 영역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예서와 해민이 나타난다.

예서: 재민아 우리 같이 레고블록 하자.

재민: (난감한 표정으로) 난……. 나 지금……. 민지랑 게임하는데…….

해민: 네가 아빠를 해야 재미있어.

예서: 그래 그래야 재미있어. 같이 하자.

재민: (민지를 바라보며 눈치를 보다가 조그만 목소리로) 나 이거 그만 할래.

민지: (회피하며) 나도 이 게임 재미없어(힘없이 미술영역으로 이동한다).

(자유선택활동 수 · 조작영역, 2016.11.18.)

세훈이 같은 경우는 사회성이 좋아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리고 리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훈이는 좀 자기중심적이고 멋대로 해서 친구들이 거부할 때가 있어요. 세훈이의 입장에 서는 친구들이 세훈이를 선택하고 세훈이와 노는 것에 대해 부러웠을 것이라 생각해요.

(C교사 개별면담, 2016.9.28.)

유아의 또래 집단에서도 다른 사회집단에서와 같이 또래간의 지위체제가 형성되며, 여기서 인기아와 비인기아가 생겨난다(이은혜, 이숙재, 1980). 이는 쌍둥이 유아의 성향에 따라 나타나는데, 인정을 받으면 정서적 안정과 성숙한 행동을 보이게 되지만 무시나 거부되는 쪽은 부정적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어 생활을 공유하는 쌍둥이에게는 더 힘든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

3) 쌍둥이의 경쟁 관계

형제자매는 경쟁자적 측면을 갖기도 하는데, Stocker, Dunn, Plomin(1989)은 이성 형제가 동성 형제보다 더 경쟁적이라고 하였다. 쌍둥이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소유욕, 먼저 하고 싶은 열망, 상대방보다 잘하고자 하는 욕구, 성인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등의 경쟁자적 측면이 나타난다.

(1) 순서 정하기

출산 전부터 함께 지내온 쌍둥이는 단짝친구이지만 경쟁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상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소소한 경쟁의식이 생긴다. 사례 [13]은 등원 시간에 엄마와의 인사를 하면서 재민이 먼저 인사를 나누고 뽀뽀를 하자 민지가 질투를 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다. 재민과 민지는 이러한 경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엄마는 ‘오늘은 재민, 내일은 민지’라고 순서를 정해준다고 하였다. 오늘은 민지가 먼저 하는 날이지만 재민이 순서를 어겨 민지는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쌍둥이는 수평적 형제관계이므로 누가 먼저 무엇을 하는지가 다른 유아들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먼저, 우선’ 등의 표현 양상이 많이 나타난다.

[13] 등원 시간, 유치원 문 앞에서 민지가 엄마에게 안겨 울고 있다.

교사: 어머님 오늘 민지 무슨 일 있었나요?

엄마: (민망하게 웃으며) 즐겁게 왔는데……. 재민이가 먼저 인사를 해서...(중략)

교사: 민지야 아까 왜 울었어? 선생님에게만 살짝 말해줄 수 있어?

민지: (한참을 망설인 후) 엄마가 오빠랑 먼저 인사했어요.

교사: 오빠랑 먼저 인사했다고? 선생님에게 다시 설명해 줄래?

민지: 유치원 올 때 (울먹이며) 엄마가 오빠랑 먼저 뽀뽀하고 인사했어요. 원래 오늘은 내가 먼저 하는 건데. 으앙~(크게 운다.)

(등원시간, 2016.09.01.)

집에서는 재민이 한번 챙기면 민지를 다섯 번을 챙기는데도 어쩌다 재민이를 먼저 챙기면 ‘왜 엄마는 맨날 오빠만 챙기냐 왜 나는 안보냐 나 먼저 해 달라’하는 등의 요구가 많아요. 재민이는 남자와 장손이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지를 더 챙기려고 노력해도 민지가 만족하지 못해요. 특히 엄마에 대해 내가 먼저, 내가 우선이라는 집착이 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뽀뽀를 해도 내가 먼저, 엄마 나 먼저 해줘, 이러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누가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늘 일이에요.

(학부모상담, 2016.4.26.)

우정관계에 있는 친구에 대한 유아들의 질투는 갈등을 표출시킬 수 있고 어떤 유아들은 우정관계에 있는 친구들에게 질투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Parker, Low, Walker, & Gamm, 2005). 이는 쌍둥이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정당한 경쟁구도가 아닌 질투에 의한 경쟁심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서로가 경쟁하고 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일과 중 손 씻기, 활동지 나눠주기 등 쌍둥이 유아 둘 사이의 순서에 대한 소소한 경쟁의식이 표현 양상으로 나타난다.

(2) 경쟁의식에 의한 쟁취자 대 희생자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사랑을 나눠가져야 하는 쌍둥이로서는 이러한 경쟁구도가 일상일 것이며 다른 또래 유아들보다 유난히 두드러지게 된다. 사례 [14]는 쌍둥이 유아들 사이에는 무엇이든 서로 경쟁을 하려는 인식이 마음에 있으며 ‘먼저’와 ‘나중’에 대한 경쟁이 심하고 작은 순서에도 충돌이 생기며 ‘내가 먼저’(7, 8)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4] 활동전이시간에 교실 이동 중 민지는 울고 재민은 짜증을 내고 있다.

1. 교사: 민지 왜 울어? 무슨 일 있니?
2. 민지: (울기만 하고 말하지 않는다)
3. 교사: 재민아 무슨 일인지 말해 줄 수 있어?
4. 재민: (짜증스러운 말투로) 아 얘가요 내가 먼저 왔는데 자꾸 새치기라고 하잖아요.
5. 민지: (울먹이며) 오빠가 내 앞에 새치기를 했잖아.
6. 교사: 누구 말이 맞는 걸까?
7. 재민: 아니요. 내가 먼저 와서 썼는데 얘가 자꾸 새치기를 했다고 그래요.
8. 민지: 내가 먼저 왔는데 오빠가 먼저 왔다고 자꾸 그래요.(더욱 서럽게 운다.)

(활동전이시간, 2016.05.17.)

세환이는 세훈이에 대하여 예민하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둘이 다툼이 있어 가보았더니 블록 하나를 둘이 잡고서 서로 놓지 않으려고 다투고 있었다. 중재하여 상황을 물어보았더니 특이한 블록을 세훈이가 먼저 가지고 있었는데 잠깐 사이 세환이가 가지고 갔다고 한다. 세환이는 바닥에 있어서 가지고 갔다고 하며 형의 것인지 물었다고 한다. 주변 아이들은 처음부터 세훈이가 가지고 놀았으며 몰래 가져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세환이에게 상황을 물어 보니 울음을 터트리며 ‘원래는 내가 먼저 했었어요.’ 라는 말만 반복하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B교사 유아관찰일지, 2016.10.4)

이러한 경쟁의식은 교사에게 전이되어 교사가 쌍둥이 둘 중 한 명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면 이를 의식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성인)에게 나타나던 사랑 쟁취의 경쟁의식이 교사에게 옮겨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례 [15]에서는 교사가 이제 글을 알아가는 서혜를 칭찬하는 과정에서 지혜는 서혜를 향한 교사 격려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혜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한다. 사례 [16]에서도 쌍둥이 관계에서 비슷한 언어적 특성이 나타난다. 대그룹 발표를 쑥스러워하는 세훈이 용기를 내어 발표한 것에 대해 교사가 칭찬과 격려해주는 상황에서 자신이 형보다 발표를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세환은 사례 [16]처럼 ‘저도 발표 잘했지요’(7)라며 자신을 강조하고 칭찬을 요구하는 표현 양상으로 보여주었다.

[15]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서혜가 혼자서 미술영역에서 컴퓨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서혜: 여기에 글자를 치면 여기에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교사: 자판이구나! 우와~! 선생님 이름이 있네. 서혜는 선생님 이름을 써줄래?

서혜가 교사의 이름을 틀리게 적을 때 지혜가 끼어든다.

지혜: 언니, 선생님 이름 틀렸어. (우쭐거리며 교사의 이름을 정확히 쓴다.) 언니는 틀리게 적는데 내가 언니보다 잘해요. 그렇지 언니?

서혜: (대답을 하지 않고 눈을 피한다.)

(자유선택활동 미술영역, 2016.10.26.)

[16] 교사와 아이들이 주말 지낸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다.

1. 세훈: 나는 주말에 동물원에 갔어. (잠시 생각을 하는 표정)

2. 교사: 동물원에서 무엇을 했어?

3. 세훈: (한참 생각한다) 코뿔소랑 여우랑 거미랑 뱀, 음..... 이렇게 동물을 봤어요.

4. 교사: 무엇이 가장 재미있었어?

5. 세훈: 음.....(오랫동안 생각한다) 독거미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중략)

6. 교사: 세훈이가 용기를 내어 발표를 해주어서 우리 모두 세훈이에게 박수를 쳐줄까?

7. 세환: (불쑥 끼어들며) 선생님 저도 잘했지요?

8. 교사: 뭐라고 세환아?

9. 세환: (칭찬을 바라는 눈빛으로) 발표 잘했지요? 나는 형보다 더 많이 했어요.

(이야기나누기시간, 2016.11.21.)

서혜와 지혜는 둘 다 어느 정도 경쟁과 질투가 있었어요. 특히 지혜가 둘째라서 그런지 언니보다 예쁨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혜는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지혜가 옆에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나도 잘 할 수 있는 데’하며 투덜거리고 지혜는 ‘내가 더 잘해요’하고, 둘다 교사의 애정을 향한 질투심이 있었고 지혜가 더 심했어요.

(A교사 개별면담, 2016.4.21.)

(3) 비교, 경쟁, 논쟁하기

유아들은 놀이를 하면서 자주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세우며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이 경쟁하는 모습은 비교하기, 경쟁적으로 말하기, 논쟁하기 등으로 나타나는데 쌍둥이에게서는 경쟁적으로 말하는 언어적 특성이 많이 나타나며 이는 사례 [17]의 대화에서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칭찬에서 시작된 경쟁적 말하기는 ‘더 멋있는, 더더더 멋있는, 더더더더 더더더 멋있는’으로 확장되고 있다. 즉, ‘내 키가 더 커’, ‘내가 더 잘해’ 등 다른 쌍둥이와 비교하는 경쟁적 말하기의 표현 양상이 보이는 것이다.

[17] 세훈이 레고 블록으로 전투기를 만들고 있으며 세환이도 친구들과 블록 놀이를 한다.

민성: (세훈의 전투기를 보며) 우와!! 진짜 멋지다.

세훈: (기분이 좋은지 웃는다.)

세환: 나도 저런 전투기 만들 수 있다. (레고 블록으로 전투기 만들기를 한다.)

세훈: 내가 더 멋있어. 이거 봐 여기에서 불도 나와.

세환: 내가 더더더 멋있어. 나는 이단으로 만들 수 있어.

세훈: 내가 더더더더더더더 멋있어.

둘은 경쟁적으로 전투기 꾸미기에 몰입한다.

(자유선택활동 쌓기놀이영역, 2016.10.20.)

2. 출생순서에 따른 쌍둥이 유아의 관계적 특성: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중심으로

형제는 같은 가족 내에서 공동의 경험을 공유하지만 부모에게서 다르게 대우받으며 비공유된 환경을 경험한다. 실제로 부모가 형제를 동등하게 대우할지라도 형제의 연령, 출생 순위, 성격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형제가 처한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유아는 부모의 행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게 된다(Kramer & Conger, 2009). 같은 연령인 쌍둥이들에게도 다른 형제자매와 마찬가지로 위계서열이 존재하는데 이는 나이에 따른 위계서열과는 달리 태어났을 당시의 물리적 시간에 의한 출생순서를 의미한다. 나이로 형, 동생을 호칭하는 문화가 없

는 서양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엄격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가부장적 관념이 남아있어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를 형, 동생으로 서열을 매기는데 이러한 서열은 쌍둥이만의 고유한 언어 표현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 출생 순서 첫째의 책임감, 양보, 권리

(1) 책임감 - 나는 형이니까 참을 수 있어요

처음으로 태어난 첫째는 부모에게는 물론 주위의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 쌍둥이의 경우는 수평적 평등관계이지만 우리나라만의 가부장적 관념으로 인해 첫째에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보편적으로 첫째는 큰 아이로서의 대우와 함께 그에 맞는 책임감을 부여받아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려 노력하고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진다. 사례 [18]에서 세훈은 “난 형이니까 울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가정에서부터 주어진 형, 첫째 등이 지녀야 할 행동이나 요구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례 [19]에서는 동생이 아픈 상황에서 자기 혼자만 놀이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놀지 못하고 동생 옆을 지키는 세훈의 모습으로 이는 첫째는 동생을 잘 돌봐야 하는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

[18] 등원 시간 세훈이 다리를 절며 들어온다.

세환: 나랑 달리기하면서 오다가 넘어졌어요.

교사: 저런 피가 났네. 선생님이 소독하고 약 발라 줄게. 아프지 않았니?

세훈: (묵묵히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교사: 대단한데! 선생님이라면 많이 아파서 울었을 거야.

세훈: 엄마가 난 형이니까 이런 걸로 울면 안 된다고 했어요.

(등원시간, 2016.09.26.)

[19] 세환이 열패치를 붙이고 누워있다. 그 옆에는 세훈이 동생을 쳐다보고 있다.

교사: (세훈에게) 왜 여기 앉아있어? 놀이 시간인데.

세훈: (세환을 한 번 쳐다보고는) 환이가 아파서요.

교사: 선생님이 엄마에게 전화했어. 엄마 오시는 동안 친구들이랑 놀이하고 있어.

세훈은 세환이 곁에 가만히 앉아서 한참 동안 지켜본 후에 자리에서 일어난다.

(자유선택활동시간, 2016.11.29.)

어려서부터 세훈에게 참으라고 많이 한 것 같아요. 싸워도 네가 형이니까 ‘참아라. 양보해라’ 이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세훈이는 자기를 표현하기 보다는 ‘동생이 먼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세훈이가 먼저, 형이 먼저’를 하고 있지만 세환이는 양보를 잘 하지 않고 한 번 만들어진 것은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학부모상담, 2016.10.20.)

(2) 양보 - 나는 언니니까 동생에게 양보해요.

첫째는 동생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표현은 서혜가 보여주는 ‘내가 언니니까요’라는 언어로 동생에게 양보하는 사례가 관찰된다. 사례 [20]에서는 서혜 또한 첫째로서의 양보심이나 책임감을 요구받으며 언니로서 양보심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 교사가 가정통신문을 쌍둥이인 서혜와 지혜에게 하나만 배부한다.

교사: 서혜야 가방에 넣어서 얼마 가져다 드려. (서혜가 봉투를 받아 든다.)

지혜: (교실 밖으로 나가며) 언니 그거 내가 가지고 갈게.

서혜: 선생님이 나한테 가지고 가랬는데.

지혜: 내가 가지고 갈게. (서혜가 망설이다 말없이 봉투를 준다.) (중략)

교사: 아까 선생님이 준 봉투 왜 지혜 줬어? 지혜가 가방에 넣는 것을 봤어

서혜: (머뭇거리다가) 지혜가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해서요.

교사: 지혜가 가지고 가고 싶다 해서 양보를 했니?

서혜: 나는 언니니까 양보했어요. 엄마가 언니는 양보를 잘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원시간, 2016.12.12.)

집에서는 한 번도 서혜에게 ‘첫째는 이래야 한다. 양보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혜는 아주 어려서부터 지혜에게 잘 양보하고 ‘나는 언니니까 괜찮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언니이고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부모상담, 2016.04.28.)

(3) 권리 - 내가 오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재민과 민지의 경우 책임감이나 양보보다는 첫째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언어 표현이 사용되는 점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사례 [21]은 게임 중 재민이 자신이 이기기 위해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장면이다. 이처럼 재민은 오빠라는 위계에 의거하여 ‘내가 오빠잖아’라는 권리를 내세운 언어 표현 양상을 보여주며 이는 이들 가정의 가부장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21] 재민이와 민지가 수·조작 영역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재민: 아싸! 이번에는 3이 나왔다.

민지: 오빠 반칙이야. 주사위가 바구니 밖으로 떨어졌잖아.

재민: 그게 왜 반칙이냐?

민지: 어제 오빠가 나한테 반칙이라고 했잖아.

재민: 그건 어제고 오늘은 아니야.

민지: 막 바뀌고 오빠 나빠. 왜 오빠 맘대로 해?

재민: 내가 오빠잖아. 그리고 내가 게임을 잘 하니까 규칙을 만들 수 있어.
(자유선택활동 수·조작영역, 2016.03.14.)

재민이는 인공수정을 해서 얻은 아주 귀한 종손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엄청 아끼고
편애하세요. 반면에 민지는 예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요. 재민이가 웃으면 무
엇이 그렇게 재미있냐고 하시면서 민지가 웃으면 여자애가 시끄럽게 웃는다고 화를 내세
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옛날 분이라 소용이 없어요.

(학부모상담, 2016.04.25.)

2) 출생순서 둘째의 애교와 사랑스러움

쌍둥이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가 복합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즉, 모두 첫 아이이므로 육아에
대한 시행착오가 많으며 자녀수가 둘 이상이므로 각자의 생활과 책임을 강조하게 된다. 쌍둥이
둘째가 가정이나 유치원에서 보이는 행동 및 언어 표현은 가정적 환경이나 부모의 영향에서
둘째로서 생존을 위해 터득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22]는 부모참여 수업에서 자신의
일만 집중하는 세훈과 달리 세환은 애교 섞인 표정과 말투로 엄마에게 샌드위치를 먹여주며
애교를 부린다. 또한 교사에게 뜬금없이 애교스러운 표현을 하고 엄마의 난감한 질문에는 ‘선
생님이랑 엄마랑 둘 다 제일 좋다’(7)라는 대답을 한다. 사례 [23]에서는 세훈은 엄마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교사에게 귓속말로 ‘선생님이 제일 좋고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3, 5). 이는
둘째로서 자신이 사랑을 받는 방법이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
이다.

[22] 세환, 세훈, 그리고 엄마가 요리활동 후 샌드위치를 먹고 있다.

1. 교사: 세훈이 세환이 맛있니?
2. 세훈: (고개를 끄덕인다.)
3. 세환: (엄지를 세우며) 최고로 맛있어요.
4. 교사: 엄마랑 만들어서 더 맛있구나?
5. 세환: (애교 섞인 말투로) 그런데 나는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6. 엄마: 그래? 그럼 엄마는?
7. 세환: (잠깐 생각 후 웃으며) 선생님이랑 엄마랑 둘 다 제일 좋아!
(학부모참여수업, 2016.06.24.)

[23] 세훈과 세환 쌍둥이 형제가 하원을 하고 있다. 유치원 입구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며 교사가 복도에서 하원 인사를 한다.

1. 세환: (조용한 목소리로) 선생님 비밀인데요.
2. 교사: 어떤 비밀일까?
3. 세환: (교사의 귀에 대고) 난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4. 교사: (웃으며) 엄마가 들으면 섭섭하실 텐데.

5. 세환: 그러니까 비밀이에요.(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댄다.)

(하원시간, 2016.06.29.)

둘째이자 막내인 쌍둥이 동생의 애교와 사랑스러운 행동은 지혜에게도 나타난다. 사례 [24]에서 지혜는 애교스러운 방식으로 교사가 만든 팔찌를 요구하고 얻어낸다. 또한 사례 [25]처럼 직접적인 스킨십을 통해 사랑스러움을 어필하고 상대를 걱정하는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획득한다. 이는 가정에서부터 행동해 온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으로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사랑을 받거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의 양상이다.

[24] 지혜, 서혜 및 여러 명의 친구와 교사가 앉아서 만들기를 하고 있다.

지혜: (교사가 만드는 팔찌를 한참 본 후) 선생님 이거 머 만들어요?

교사: 무엇을 만드는 것 같아?

세연: 우와! 예쁜 팔찌다. 왜 만들어요?

교사: 착하고 예쁜 친구 주려고

지혜: (눈웃음을 지으며) 그럼 나를 주는 거예요?

교사: 지혜는 지혜가 착하고 예쁜 친구라고 생각하니?

지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착하고 예쁜 친구 맞아요.

교사: (웃으면서) 지혜가 그렇다면 지혜를 줘야겠네.

교사는 지혜의 팔에 팔찌를 채워주고 서혜는 그것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자유선택활동 미술영역, 2016.06.14.)

[25] 금요일 하원 시간 유아들이 선생님과 개별인사를 나눈다.

교사: 서혜야, 주말 즐겁게 보내고 월요일에 만나자.

서혜: (공손히 인사하며) 안녕히 계세요.

교사: 지혜야, 주말 즐겁게 보내고 월요일에 만나.

지혜: (갑자기 교사를 안으며 볼에 뽀뽀하고) 선생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주말 보내세요.

(하원시간, 2016.07.01.)

3) 쌍둥이 간의 형제 호칭에 의한 혼란: 위계질서 대 동료의식

형제자매는 서로에게 교사와 학생, 지휘 감독자와 부하, 보호자와 의존자 등의 역할을 하며 민감하고 다정한 순위 형제자매는 애착의 대상으로서 동생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기도 한다(우은숙, 2003). 쌍둥이의 경우 형·동생이라는 호칭을 하며 서로에게 상호관계의 역할을 하지만 같은 연령 반 친구들에게 동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 사례 [26]은 학기 초 재민이 민지를 동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며 질문하지만 재민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동생이니까 동생이지’라고 대답을 한다. 이는 또래들에게 같은 연령임에도 호칭에 따라 쌍둥이 동생이 자신보다 어리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26] 재민과 민지 그리고 재윤, 남현이 수·조작 영역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민재: 이번에는 내 동생 차례야.

재윤: (민지를 쳐다보며) 친구인데 왜 자꾸 동생이라고 해?

재민: 동생이니까 동생이지

남현: (민지에게) 오빠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인다.)

재윤: 너는 동생인데 왜 토끼반에 있어? 동생이면 다람쥐반이지.

민지: 나는 6살이니까 그렇지.

재윤: 6살인데 왜 동생이야?

재민: (가슴을 치며) 내 동생이니까 동생이지!

(자유선택활동 수·조작영역, 2016.03.15.)

처음부터 동생이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동생인거예요. 세환이는 ‘내 동생’이라고 칭하고 세훈이는 ‘우리 형’이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직 (만 3세라서) 쌍둥이 개념이 없잖아요, 학기 초 한동안은 반 아이들이 다 세환이를 동생으로 봤어요.

(A교사 개별면담, 2016.04.21.)

집에서는 반드시 재민이를 오빠라고 부르게 해요. 쌍둥이지만 첫째로 태어난 만큼 첫째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아버지(재민의 할아버지)께서 강조하시기 때문이에요.

(학부모상담, 2016.04.25.)

쌍둥이지만 언니는 언니, 동생은 동생으로 확실히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혜의 경우 가끔 언니를 무시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럴 때 마다 저희 부부는 지혜에게 서혜가 언니임을 확실히 강조해주어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점을 알려주지요.

(학부모상담, 2016.10.19.)

이렇듯 가정에서 위계질서에 대한 강조로 사용하는 호칭으로 인해 쌍둥이임에도 동생으로 여기거나 형으로 여기는 상황이 학기 초에는 종종 발생한다. 연령이 같음에도 쌍둥이만이 사용하는 언어인 ‘형과 동생, 언니와 동생, 오빠와 동생’으로 인한 혼란으로 학기 초에 같은 반 유아들에게 쌍둥이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또한 그것이 쌍둥이들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 학급이 같은 연령으로 구성되고 모두 친구인 것을 여러 차례 설명해야 하는 상황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유치원에서 ‘쌍둥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주제로 확장될 수 있으며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확장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위계질서의 호칭이 아닌 쌍둥이만의 고유 표현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또래 상호작용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쌍둥이의 관계적 특성과 쌍둥이의 출생순서에 따라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쌍둥이 유아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특성

연구를 통해 쌍둥이 유아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특성의 결과는 둘만의 배타적 결속 관계, 서로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쌍둥이의 경쟁관계로 나타났다.

첫째, 쌍둥이 유아는 서로 의지하면서 동일시되는 대상인 또래가 이미 태어나면서 형제자매 안에서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친밀한 애착관계는 쌍둥이들로 하여금 그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며 둘만의 배타적 결속 관계의 표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배타적 결속 관계에서 둘만의 비밀, 둘만의 놀이, 둘만의 결속을 위한 표현이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또래관계보다 둘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깊게 형성되어 나타나는 표현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둘만의 배타적 결속 관계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기관까지 모든 생활 전반을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형제관계는 행위적, 인지적, 애정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 관계가 존속되고(박정민, 2010), 친구관계는 애정이나 관심, 흥미 및 정보 등을 공유하며 함께 하는 상호적이고 자발적인 애착관계(정인수, 2005)인데, 쌍둥이는 이 둘의 특성을 공유하는 독특한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서, 쌍둥이 유아는 유전적, 사회적 유산을 공유하며 유사한 환경에 살고 있는 형제자매 관계이자, 나이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위치이며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 행동이 비슷한 또래관계이기 때문에 단짝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학급에서 지내는 쌍둥이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인해 또 다른 또래 집단에 스스로없이 소속되거나 어울리는 등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서로에게 지나친 애착으로 쌍둥이 외에 다른 친구나 형제를 멀리 할 수 있다. 유아기는 모든 유아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으로부터 사회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기로, 쌍둥이 유아가 한 학급에 있더라도 서로 자리를 떨어지게 하여 각각 서로 다른 유아들과 친구 관계를 맺어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로의 능력이 비교되어 우열로 인한 심리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독립된 개체로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들을 배우는 기회를 주는 등 쌍둥이들의 폭넓은 또래 관계 맺음을 위한 교육적·사회적 대안들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상대 쌍둥이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은 서로의 부재에 대한 공허함, 단짝인 자신 외의 다른 친구와 놀이할 때에 나타나는 배신감, 나의 빈자리에 반응이 없는 상대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성인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부러움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쌍둥이 유아는 상대 유아가 없는 경우 낯설음을 느끼거나 자신이 아닌 다른 친구와 놀이에 배신감을 느끼는 등 상황에 따라 상대에 대한 정서적인 표현을 나타냈다. 이는 형제이면서 또래 관계인 쌍둥이들의 독특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유아기의 친구는 안정감의 제공자이고 자신의 능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활동에 동반자가 되기도 하므로 (이만수, 정세호, 2014), 쌍둥이 유아가 느끼는 상실감 및 배신감 등은 다른 또래 관계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크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가족이나 친척 관련 요인, 친구 관련 요인, 학교 관련 요인 등으로 나눈 박성혜(2002)의 연구뿐만 아니라, 유치원 유아는 가족 관계, 자아 통제, 유치원 또래 관계, 안정감, 자아감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정은(1992)의 연구와 공통점을 보인다.

쌍둥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같은 연령이기 때문에 외모, 성격, 행동 등의 측면에서 타인으로부터 많은 비교를 받으며 자란다. 이는 쌍둥이가 서로 질투와 경쟁 속에 자란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되지만, 부분의 환경을 공유하여 행동하고 조화롭게 생활을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갖는다. 따라서 쌍둥이를 지도하는 유아교사는 그들의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개인차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해야 하며, 쌍둥이 유아의 개인 요구와 또래 상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문가로서의 교사역할을 수행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셋째, 쌍둥이의 경쟁관계는 쌍둥이가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소유욕, 먼저 하고 싶은 열망, 상대보다 더 잘 하고자 하는 욕구, 성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등의 표출이다. 경쟁구도의 언어 표현으로는 순서 정하기, 쟁취자 대 희생자의 표현,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 또는 논쟁적으로 말하기로 나타났다. 쌍둥이 유아는 서로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는 관계에서 부모의 사랑, 교사에 대한 관심, 순위 경쟁에 민감해 하며 이러한 심리적 갈등을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우정 관계에 있는 유아들은 서로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때로는 상대 유아가 주도권을 잡고 친구를 통제하려 할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로 간에 경쟁양상도 나타날 수 있다(문혜련, 2011). 이러한 결과는 수평적 관계를 맺는 형제자매와 동등한 지위의 또래 관계를 통해 집단적 소속감을 경험하는 동시에 방어, 갈등, 경쟁 등 쌍둥이 간 경쟁자적 구도에서 오는 긴장감 및 열등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출생순서에 따른 쌍둥이 유아의 관계적 특성: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중심으로

같은 연령인 쌍둥이 유아들에게도 다른 형제자매와 마찬가지로 위계서열이 존재하였는데 나이 차이로 형, 동생을 호칭하는 문화가 없는 서양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가부장적 관념이 남아 있어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를 형, 동생으로 서열을 매기

고 이러한 서열이 쌍둥이만의 고유한 표현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째, 출생순서에 따른 쌍둥이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서 출생순서 첫째가 가지는 책임감, 양보, 권리 등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는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의 양육 형태와 기대감에 따라 나타나는데 박정민(2010)의 연구에서 첫째는 동생보다 자신이 더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첫째로서의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동생과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며 동등한 형제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양육하는 양육자의 의식전환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또한 쌍둥이의 학부모에게 쌍둥이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개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정서표현이나 대화방식 등에 관한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출생순서 둘째에게서는 애교와 사랑스러움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는 출생 순서에 따라 두 번째로 태어났으나 첫째와는 다른 기대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언어 표현으로 둘째에게 모방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고, 첫째보다 친사회적 행동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Roos, Woody, Smith, Lollis(200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둘째의 표현은 성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교와 사랑스러움의 표현으로 긍정적인 친사회적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첫째와는 다른 책임 회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둘째는 첫째와의 관계 속에서 첫째가 자신의 보호자나 의존을 해야 하는 상대가 아닌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첫째 역시 둘째가 돌봄의 대상이 아닌 쌍둥이 간에 상호의존 관계임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첫째가 형제 상호작용을 주도한다고 생각하여 상대적으로 둘째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호작용은 둘의 동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나오는 것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쌍둥이 간 형제 호칭에서 위계와 동료의식이 혼재된 관계적 특성을 보였다. 쌍둥이의 위계는 일반적인 나이에 따른 형제자매의 위계와는 달리 태어날 당시의 물리적 시간 차이에 의한 순서를 의미하며 이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위계질서인 서열 정하기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같은 반 또래 사이에도 형(언니, 오빠 등), 동생으로 불리는 쌍둥이 유아의 호칭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어 갈등으로 이어지지만, 연령에 의한 수직적·수평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혼합연령에서는 보통의 형제 관계로 인식되었다. 형제자매는 부모의 부재를 보완하는 존재로서 순위 형제가 동생을 돌보는 보호자와 의존자의 역할을 한다(유영주, 1989)고 볼 때, 쌍둥이 유아 간의 형·동생이라는 호칭은 같은 학급의 또래 유아들에게 동료의식의 형성을 저해하고 쌍둥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 학급 내에서 쌍둥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쌍둥이는 형제관계나 친구 관계와 차별화되는 특수한 관계로 어려서부터 본의 아니게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경

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사와 부모는 쌍둥이의 관계적 특성을 이해하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보다 폭넓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 상호작용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쌍둥이의 관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쌍둥이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쌍둥이 각자 다른 또래와 사회적·정서적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교사, 부모 등)의 역할 및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고은영 (2010). 쌍둥이 영아의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관련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광현, 이희경 (2002). 유아사회교육. 서울: 동문사.
- 김지현 (2003). 3세 및 5세 유아의 또래 갈등 상황에 따른 정서표현 언어와 정서표현 행동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태 (2008). 유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협동과 경쟁. 유아교육연구, 28(2), 243-269.
- 도혜숙 (1997).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혜련 (2011). 만 5세 유아들의 우정의 질과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혜 (200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 변인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민 (2010). 유아의 출생순위와 성별 및 형제 성별에 따른 형제관계의 질과 자기조절력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란 (2008). 5세 유아의 우정 형성과 유지과정 탐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경애, 김은주 (2013). 영아 쌍둥이 육아 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어려움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6), 267-285.
- 서영숙, 이재연, 성영혜, 김광웅 (1992). 아동심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 우은숙 (2003). 형제자매 구성 형태에 따른 유아의 정서 지능의 차이.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 (1989).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윤수인 (2007). 쌍둥이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순 (2003). 쌍둥이 아동과 일반 아동과의 자아개념 발달 비교 연구.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 (1984).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전단계에 따른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94-113.
- 이만수, 정세호 (2014). 또래 협력 중심 신체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5(3), 123-171.
- 이은혜, 이숙재 (1980).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년차보고서. 서울: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 이은희 (2011). 두 배의 신비 쌍둥이: 쌍둥이는 어떻게 생길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3368&cid=58943&categoryId=58966>에서 2011년 12월 2일 인출.
- 이정은 (1992).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일상적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수 (2005). 동화를 활용한 교육활동이 유아의 우정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주, 최연철 (2013). 만 4세 자유선택놀이에서 나타나는 또래문화의 특성.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1), 241-262.
- 통계청 (2015). 2014 출생통계. <http://kostat.go.kr>에서 2015년 8월 25일 인출.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loom, B. S. (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Y.: John Wiley and Sons.
- Corsaro, W. (2003). *We're friends, right?: Inside kids' cultures*. London: Joseph Henry Press.
- Hirschfeld, L. (2002). "Why don't anthropologists like children?". *American Anthropologist*, 104(2), 611-627.
- Kramer, L., & Conger, K. J. (2009). What we learn from our sisters and brothers: For better or for worse. In L. Kramer & K. J. Conger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26 (pp. 1-1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almstorm, P., & Poland, J. (2000). 쌍둥이 잘 기르기. [The art of parenting twins: The unique joys and challenges of raising twins and other multiples]. (노순옥 역). 서울: 올림. (원본발간일 1999년).
- Miller, N., & Maruyana, G. (1976). Ordinal position and peer popular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123-131.
- Parker, J. G., Low, C. M., Walker, A. R., & Gamm, B. K. (2005). Friendship jealousy in young adolescents: Individual differences and links to sex, self-esteem, aggression and soci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235-250.
- Pison, G., & Couvert, N. (2004). The frequency of twin births in France: The triple influence of biology, medicine and family behavior. *Population*, 59(6), 765-794.
- Roos, H., Woody, E., Smith, M., & Lollis, S. (2000). Young children's appraisals of their sibling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46(3), 441-464.
-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Belmont, CA: Wadworth/Thompson Learning.
- Stocker, C., Dunn, J., & Plomin, R. (1989). Sibling relationships: Links with child temperament, maternal behavior, and family structure. *Child Development*, 60, 715-727.
- Zahn-Waxler, C., Schiro, K., Robinson, J. L., Emde, R. N., & Schmitz, S. (2001). Empathy and prosocial patterns in young MZ and DZ twins: Development and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In R. N. Emde, & J. K. Hewitt (Eds.), *Infancy to early childhood: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developmental change* (pp. 141-162).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Twin Children in Peer Interaction: Based on Their Verbal and Non-verbal Expression

Lee, Seung-Hye

Park, Sun-Hee

This study had started to observe twin children through teaching-learning process of twins in the childhood education field and analyzed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twin children in peer interactions based on their verbal and non-verbal expre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elp understanding twin children's general language expression and to offer academic and practical assistance to parents who raise twins as well as to teacher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three pairs of twin children who enrolled in a 4-year-old class at the Y public kindergarten located in Seoul, their parents, and 4 teachers who taught them. The study was done with participant observation, interviews, documents and audiovisual material as well as the researcher's journal for ten months from March 7 to December 23, 2016.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spect of language expression in peer interaction between twin children showed three characteristics. They were the exclusive relational bond, emotional expression to each other, and competitive companion. Second, the twin children showed different aspects of language expression according to their birth order. First born twin in the peer interaction expressed a sense of responsibility, give-up, and right, while second born twin expressed the language of charming and loveliness. Twin children used hierarchical order title and this caused confusion among other peers. In a Korean kindergarten class, twin children called their siblings by his/her title given according to the hierarchical order rather than calling by his/her name like in western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understanding of twin children in peer interactions provides children and teachers to extend their learning environments and use various life situations as a hidden curriculum.